

# 폭염 장기화에 농산물 대란 현실화

### 농작물 1016.9ha 일소·가축 453만 마리 폐사 정부, 내일 폭염대비 수급 안정책 추가 발표

폭염의 장기화로 농·축산물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예년보다 열흘 가량 빠른 추석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급기야 비상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가능한 정부가 오늘 수급 안정대책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총 453만 400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박의 축산농가 피해 1만1412마리(닭 1만120마리, 오리 1250마리, 돼지 38마리, 소 4마리)도 포함된 숫자다.

지난해 여름 이맘때의 289만5000마리보다 56.9%(163만5409마리) 늘었다. 축종별로는 닭이 425만7068마리(93.9%)로 가장 많이 폐사했다. 오리 20만19018마리, 매추리 4만6000마리, 돼

지 1만7819마리, 관상조 500마리, 소 4마리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농작물 피해도 상당하다. 지금까지 1016.9ha(헥타르·1ha=1만㎡)에서 햇빛 데임(일소) 현상이 발생했다. 여의도 면적(290ha)의 3.5배에 이른다.

사과·포도·단감·복숭아·자두·배 등 과수밭 513.5ha(헥타르·1ha=1만㎡)에서 과수 잎이 마르거나 열매가 강한 햇살에 오래 노출돼 표피가 변색되고 썩었다.

고추·수박·무·배추 등 채소밭 175.31ha, 인삼·깨·오미자 등 특작물 재배지 256.2ha, 콩·생강·옥수수 등 전작밭 71.9ha에서도 생육 장애가 나타나 올해 농사를 망쳤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농작물의 경우 적어도 예년보다 10~20%의 수확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개 당국 판단이다.

해상에서도 급격한 수온 변화로 인한 수산물 피해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전남에서는 장흥 아귀의 광어 130여 마리, 한평 아귀의 돌돔 80여 마리 등 4만 마리 가 폐사했다. 울산 울주군에서도 넙치 등 4만여 마리가 죽었다. 우리나라 전복 양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도 역시 고수온으로 전복 집단 폐사 위기에 처해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올해 개화기 이상적인 현상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밤상 물가가 요동친다는 데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날 발표한 '주요 농산물 일일 도매가격' 동향을 보면 무 가격은 개당 2581원으로 평년보다 119.9%, 한 달 전보다 128.8% 뛰었다.

양배추는 포기당 4607원으로 평년의 119.1%, 전월의 231.2% 폭등했다. 배추는 포기당 3369원(평년의 19.5%, 전월의 84.5%), 시금치는 4kg당 6만520

원(평년의 107.7%, 전월의 285.0%)으로 올랐다.

수박은 8kg짜리 한 통당 2만5083원으로 평년보다 57.4% 복숭아(백도)는 4.5kg당 2만811원으로 35.7%, 포도(캠벨)는 5kg당 2만3398원으로 32.7% 각각 급등했다.

닭고기는 kg당 1888원으로 21.0% 소고기(한우·지육)는 kg당 1만8597원으로 6.9% 오른 상태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제수용품 중심으로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허정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과 채류장은 "개화기 지은 피해와 최근 폭염으로 올해 전체 과일 생산량은 감소해 배를 제외한 과일류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오를 전망"이라며 "과채류도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출하량 증가에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30억원 규모의 가뭄 예산을 자차단체별로 배정·지원하고, 폭염에 대해 관계사실이 없는 발에 농업을 관광 및 용수를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김영태 기자



전북개발공사는 6일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모항해나루 가족호텔에 느린우편 우체통(행복박스)을 설치했다.

## 당신의 행복과 추억을 1년간 간직해 드립니다

### 전개공, 모항해나루 가족호텔 느린우편 우체통 설치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6일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모항해나루 가족호텔에 느린우편 우체통(행복박스)을 설치했다. 업서는 호텔 레스토랑, 카페숍을 이용한 고객 및 그날의 생일자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 사연을 적은 후 느린 우편 우체통에 넣으면 부안우체국이 수집·보관하다가 1년후 원하는 주소로 발송해 준다.

우체통은 사진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대 모양으로 제작되었고 특히, 전국최초로 우편함에 이용객의 수를 표시하는 카운터가 부착되어 있어 방문객에

게 또다른 즐거움이 예상되고 있다. 모항가족호텔은 하계 성수기(7.20~8.18)를 맞아 조식부페운영, 야외수영장개장 치킨&피자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김동식 총지배인을 비롯한 50여명의 호텔운영 직원들은 편안한 객실,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호텔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모항해나루가족호텔 홈페이지(www.haenamhotel.co.kr) 또는 프린트(☎063-580-08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 전북은행, 'JB 사랑 나눔 현열캠페인'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6일 전북은행 본점 1층 주차장에서 2018 하절기 JB 사랑 나눔 현열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휴가 및 방학 등으로 현열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부족한 혈액수급을 돕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전북은행 본점 임직원, 협력사 및 임주사 직원 대상으로 실시, 전북은행은 사내 나눔 문화 확산과 현열증 가부를 통한 이웃사랑에 앞장서고자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으로부터 이동현열박스를 지원받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현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참여로 훈훈한 분위기에 JB 사랑 나눔 현열캠페인 현열에 동참하게 됐다.

또한,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무더운 폭염 날씨와 휴가 및 방학시즌으로 인한 도내 혈액수급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기"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이달 24일부터 전기 검침일 변경 요청 가능해져

### 검침일 따라 전기요금 제각각... 한전 '배짱 약관' 공정위, 불공정 조항 시정요구에 한전 수동키로

24일부터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전기 검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통상 7차례에 나눠서 한다.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28~말일까지다.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지는 탓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에 차이가 난다.

특히 냉방기 사용으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8월 중

순의 경우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 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7월 1일 검침일인 고객은 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5700원의 전기료를 내면 되지만 15일이라면 600kWh가 적용돼 13만6040원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약과 제69조에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한다'라고 해 고객이 선택할 수 없도록 해왔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료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

효'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전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소비자가 유선 또는 사이버지침을 통해 검침정보를 제출)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이에 한전은 기본공약약관 하위의 시행세칙을 즉시 개정해 오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상위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고객들이 한전의 주택용 누진제 요금 규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 상고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판결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 그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가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태 기자

### 농협은행 전북본부, '포용적 금융 동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6일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에 적극 동참, 금융취약계층의 자금 애로와 금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대출지원을 지속적으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서민금융 대표적인 상품

인 새희망플러스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직장에 근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CB등급(KCB 또는 NICE 신용등급)이 6등급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자로 해당된다.

또한, 대출기간은 5년 이내(대출기간의 1/3범위내 최장 1년 거치 가능)로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할부상환으로 대출한도는 3,000만원까지이며, 중도상환해약금은 없다.

한편, 대출신청 내용문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각 지점 또는, 현장지원단 호출현 차장(240-3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농협은행 전북본부, 폭염보다 더 뜨거운 이웃사랑 실천

김장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박병철 전북노조위원장 이문식 농협은행 고창군지부장은 6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희망나눔 집 고쳐주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희망나눔 집 고쳐주기' 행사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을 만들자는 김장근 본부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수립된 '사회공헌 연간계획' 중 하나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사 100원을 맞은 농협은행 신규직원과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 사회공헌봉사단원 등 총 25명이 참여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고창, 익산, 전주, 순창 등에 소재한 장애인 가구 5곳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집 고쳐주기 행사에 참여한 농협은



행 직원들은 집 안팎을 청소하고, 낡고 비위생적인 벽지와 장판을 교체했으며, 이동을 불편하게 하는 높은 문턱을 제거하는 등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김장근 본부장은 "한 가족에게 쾌적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린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는 곳에 더 많이 찾아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